

현재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혹은 디스토피아적 상상: 조이스와 헉슬리 이어서 읽기*

김 경 숙

I. 들어가며

SF소설에서 상상과 허구의 소산으로 간주되었던 로봇과 사이보그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형태로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인간을 대신하고, 특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보고서를 순식간에 작성해내는 챗GPT(ChatGPT)가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SF소설은 더 이상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장르로 치부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굳이 ‘SF’라는 표식을 달고 있지 않은 일반 소설 텍스트들도 현실 세계와 긴밀하게 맞닿아 대안의 형태로 ‘현실적인’ 진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전망을 제공한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20세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8777).

를 풍미한 두 작가 — 조이스(James Joyce) 그리고 헉슬리(Aldous Huxley) — 의 작품을 통하여 20세기와 미래에 대하여 이들이 제시한 유토피아적 혹은 디스토피아적 상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조이스와 헉슬리는 동시대에 작품 활동을 했으나, 두 작가 사이에 그 어떤 교류도 알려진 바가 없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율리시스』(*Ulysses*)와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는 묘하게 닮았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로서, 세 명의 중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블룸(Leopold Bloom)의 환상을 통해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작품 전체의 시대적 배경을 서기 2540년으로 설정해 놓고 존재의 모든 영역이 통제되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그렸다. 언뜻 보기에 두 작품은 마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혀 다른 상상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외로 유사한 측면도 많고, 더 중요하게는 마치 야뉴스의 얼굴처럼 두 작품을 병치해 읽었을 때 현재/미래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외설 시비로 곤욕을 겪은 『율리시스』는 1922년에 출판되었고, 『멋진 신세계』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1932년에 출판되었다. 두 작품의 출판 시기가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을 만큼 두 작가는 동시대에 활동하였지만, 두 작가에 대한 면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조이스에 대한 영향을 한 마디로 일축해버린 헉슬리 자신의 언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뷰에서 헉슬리는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소 심드렁하게 답한 바 있다.

『율리시스』는 분명 매우 비범한 책이죠. 제 말씀은, 그 작품의 상당 부분은 소설을 어떤 식으로 쓰면 안 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가 왜 그런 책을 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 . 훌륭한 대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Fraser and Wicks)

위의 인터뷰에서 혁슬리는 조이스에게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는커녕 『울리시스』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한다. 혁슬리의 이러한 냉소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서로를 언급조차 한 바가 없기에 두 작가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두 작가이기에 소설의 형식에 대한 고민, 특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세계전쟁 이후 황무지가 된 문명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적지 않은 유사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디스토피아적 상상, 계급적·인종적 타자로 등장하는 중심인물의 소외문제, 여러 인물의 서사를 동시에 제시하는 문체, 기존 텍스트 - 각각 『오디세이아』(*Odyssey*)와 『템페스트』(*The Tempest*) - 에 대한 다시 쓰기 등 많은 측면에 있어서 두 작품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일단 두 작품 모두 중심인물이 겪는 소외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울리시스』의 블룸은 유대인으로서 아일랜드에 완전하게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의 버나드(Bernard Marx) 역시 자신의 계급 알파에 어울리지 않는 왜소한 외모로 늘 소외감을 느끼며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존(John)은 문명 너머 보호구역(Reservation)에서 온 완벽한 이방인이다. 두 작품은 이방인들의 시각을 통하여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회의 틈과 균열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소설이 제시하는 결말은 서로 다르다. 조이스는 삶을 긍정하는 몰리(Molly Bloom)의 독백으로 텍스트를 끝냄으로써 해피 엔딩을 보여준다. 반면에 혁슬리는 존의 자살로 마무리함으로써 참혹한 결말을 보여준다. 결국 두 작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소 상반된 상상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의 경우 역사를 악몽으로 간주하여 트라우마 혹은 디스토피아로서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거리의 소음으로서의 현재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그려낸다. 또한, 다양한 인물의 서사를 병치함으로써 유일무이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대안을 제시한다. 반면에 혁슬리는 강력한 전체주의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획일화되며 그 안에 개별적 주체성이 말살되는 악몽으로서의 미래를 보여준다.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도 두 작품은 비교 가능한 지점을 제공한다. 『율리시스』에서는 정작 블룸과 피를 나눈 자식 루디(Rudy)는 어려서 죽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스티븐(Stephen Dedalus)과 정신적 부자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는 가족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제시한다.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생명체들은 개별성이 완전히 제거되어 태생부터 계급에 맞는 외모와 정신능력을 부여받고 각자 주어진 사회적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계급적 정체성만을 지닌 채 살아간다. 가족 중심의 끈끈한 유대는 오히려 금기시된다.

그리고 여러 인물의 서사를 병치하는 서술기법 상의 유사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율리시스』의 경우 텍스트 전체가 세 인물의 서사의 병치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열 번째 에피소드 「방황하는 바위들」(Wandering Rocks) 같은 경우 더블린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19개의 이야기를 병치함으로써 중심 서사를 제공하지 않고 19개의 모자이크 조각을 맞추어 독자가 아일랜드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립하도록 한다. 『멋진 신세계』의 세 번째 장 역시 이와 유사한 서술기법을 활용한다. <런던 중앙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에 견학온 학생들에게 세계국가의 역사를 설명하는 무스타파 몬드(Mustapha Mond)의 연설 장면, 근무 시프트를 마치고 데이트를 준비하는 양육소의 직원 헨리 포스터(Henry Forster)와 동료와의 대화 장면, 그리고 포스터의 여자 친구 레니나(Lenina)와 또 다른 여성 동료와의 대화 장면 등 세 개의 서사는 챕터 내내 쉴 새 없이 교차·병치되며 각 서사의 통일성에 흠집을 낸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 모두 기존의 텍스트에 대한 다시 쓰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주지하듯,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오디세이아』에 대한 다시 쓰기이다. 조이스는 위대한 영웅 오디세우스(Odysseus)의 모험이야기를 위대할 것 하나 없는 보통 사람 블룸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바꾸어 전

한다. 용감한 영웅은 소시민으로, 영웅의 정숙한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는 과감한 여성의 모습으로 다시 쓰여지고,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권위는 희화화된다. 또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역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템페스트』에 대한 다시 쓰기로서 셰익스피어 혹은 영문학 전통이 중시하는 인간 본성의 권위를 해체한다. 『템페스트』에서 절대자 역할을 하는 마법사 프로스페로(Prospero)가 무인도에 구현하는 유토피아는 『멋진 신세계』에서 차디찬 기계문명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디스토피아로 다시 쓰여진다. 결국 두 소설은 기존의 텍스트가 갖는 고정된 의미를 전복시키고, 고정된 현실을 대체하는 상상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본 논문은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나타난 유토피아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구현하는 디스토피아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그 방향은 다르지만, 현실에 대한 대안의 버전을 상상하는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학의 궁극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또한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조이스의 유토피아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세 인물들의 하루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다른 어떤 소설 텍스트보다 현재와 현실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예술적 자의식이 강한 청년으로 등장하는 스티븐, 외간 남자를 침대로 끌어들이 정사를 벌이는 아내를 둔 오쟁이 진 남편 불륜, 성적 욕망으로 가득한 반수면 상태의 내적 독백을 그대로 텍스트 상으로 옮기는 몰리(Molly Bloom) 등 세 인물의 이야기는 일견 유토피아적 혹은 디스토피아적 상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소 엉뚱한 환상으로 텍스트를 적시는 역할을 하는 불륜은 조이스의 분신이라 할 냉소가 스티븐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텍스트 전체의 무의식이

라 할 15번째 에피소드 「키르케」(Circe)장에서 블룸의 유토피아적 상상은 극에 달한다. 물론 15장은 기본적으로 판타지 드라마 장르를 도입하여 블룸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무대 위에 외화시킴으로써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반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전적으로 블룸의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더블린 시내에서 하루 종일 무시와 소외의 희생자였던 유대인 블룸이 메시아처럼 일종의 ‘블룸제국’(Bloomusalem)을 선포하는 장면은 블룸 혹은 조이스의 유토피아적 상상의 표출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블룸

짐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제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려 하오. 나, 블룸은 여러분에게 진실로 고하노니, 심지어 지금 그것이 가까이에 임하였소. 그래요, 블룸의 이름에 맹세하노니, 여러분은 미래의 신생 아일랜드의 새 블룸 성지가 될, 황금도시로 머지않아 진입하게 될 것이오. (U 15.1541-45)

블룸

나는 시의 공중도덕의 개혁과 순수한 십계를 지지하오. 낡은 것 대신 새로운 세계를. 만인의, 유태교도, 회교도 그리고 이교도들의 대동단결을. 자연의 모든 아이들에게 3에이커의 토지와 한 마리의 암소를. 세단형 자동 영구차를.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 육체노동을. 대중을 위한 모든 공원의 주야 개방을. . . . 자유 화폐, 자유 임대, 자유 연애 그리고 자유 속인국의 자유 세속 교회들. (U 15.1684-93)

블룸

잡종과 잡혼을. (U 15.1998-99)

환상의 에피소드 15장에서 블룸은 메시아로 변신하여 십계명을 선포함으로써 계급 구분이나 인종 구분 없이 만인이 평등한 제국을 상상한다. 비록 현실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되기 일췌인 비주류 유대인이지만, 환상에서 만큼은 제국을 세우는 황제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처럼 소외

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수입이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Kent).

흥미롭게도, 계급도 인종적 구분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블룸의 유토피아적 상상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의 이상주의자 곤잘로(Gonzalo)의 대사를 상기시킨다. 주지하듯,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태생시킨 모체와도 같은 텍스트이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라는 표현 자체가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Miranda)의 대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라곤 아버지 프로스페로를 제외하고는 칼리반(Caliban) 밖에 본 적이 없는 미란다는 밀라노에서 온 귀족들을 보고 외친다: “오, 놀라워라! 선한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인가! 저런 사람들이 사는 오 멋진 신세계여!”(O, wonder! How many goodly creatures are there here! How beauteous mankind is! O brave new world that has such people in't)(*Tempest* V.1.182-85). 정작 이 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칼리반에 대해서는 괴물 취급을 하면서, 아버지 프로스페로의 지위를 찬탈하고 이 섬마저 정복할 야욕이 있는 유럽인들을 향한 ‘멋진 신세계’라는 이 아이러니한 표현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결국 인간성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매우 적절한 제목을 제공한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텍스트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맹신하는 이방인으로 등장하는 존이 세계국가(World State)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디스토피아를 향해 “멋진 신세계”라는 찬사를 되낸다.¹⁾

『템페스트』 텍스트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장면은 다음과 같다. 프로스페로의 충신 곤잘로는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섬을 둘러보며 유토피아적 상상을 쏟아낸다.

1) 물론 정신적 향락을 가져다주는 소마(soma)에 취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경험한 후 다시 내뱉는 “멋진 신세계”라는 존의 외침은 조소와 혐오가 섞인 아이러니한 외침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곤잘로 그 나라에선 뭣이든지 지금과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매매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도 없고, 문학도 모르고, 빈부도 없고, 주종 관계도 없습죠. 계약, 상속, 경계, 토지의 구획, 경작, 포도밭도 없고요, 금속, 곡물, 술, 기름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놀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순진 결백하고, 군주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 . .]

만인 공용의 필수품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대자연이 공급해 준다는 거지. 반역, 중죄, 창검도 필요 없고, 칼과 총도 소용없고, 기계 하나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자연이 오히려 무르익어서 천진난만한 국민을 먹여 살린단 말씀이야.

[. . .]

전 완전무결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황금시대는 문제도 안됩니다.

(*Tempest* II.1.152-73)

곤잘로는 불평등한 계층 구분 하에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하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제국을 꿈꾼다. 그 어떤 교역도, 행정관도, 심지어 문자도 없고, 부유함과 가난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광물도 농업도 직업도 없이 모두가 빈둥댈 수 있는 그런 이상향을 꿈꾼다. 실제 내용은 오히려 대조적이지만, 이러한 곤잘로의 유토피아적 몽상의 기원은 ‘유토피아’라는 용어의 유래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1516년 저서 『유토피아』(*Utopia*)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모어가 직접 주조한 말로 ‘어디에도 없다’(nowhere)라는 뜻이다. 제1권은 저자를 포함한 3자의 대담으로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엄격한 법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귀족, 전쟁을 좋아하는 군주, 양털 가격의 상승 덕에 부를 축적하는 지주 및 사유재산제도를 비판하는 등 당시 영국 사회의 악폐를 지적한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라파엘이 여행 중에 본 이상국 유토피아 섬의 풍습과 제도 등을 소개한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농업에 종사하고 게으른 자는 추방된다. 모든 사람들이 직업이 없이 빈둥거리며 사는 것을

꿈꾼 곤잘로의 이상향은 모어의 버전과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가 평등한 국가형태를 상상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결국 라파엘, 곤잘로, 그리고 블룸으로 이어지는 유토피아적 상상의 계보는 현실에 부합하건 현실과 상반되건 일단은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를 둔 채 구상한 이상향에 대한 상상을 펼쳐낸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경우 15장 이전의 텍스트에서는 영국에 의한 식민주의, 편협한 가톨릭주의, 국수주의에 가까운 맹목적 민족주의, 외부인을 배척하는 반유대주의 등으로 분할된 당대 아일랜드에 대한 묘사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적, 인종적, 심지어 젠더의 차이까지도 지우고 하나로 통합된 블룸제국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유대인으로서 늘 차별 대우의 대상이 되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블룸에게 있어서 1904년 6월 16일 아일랜드는 어쩌면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적 상상을 펼치는 주체가 바로 블룸 자신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III.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앞서 살펴본 라파엘, 곤잘로, 블룸, 혹은 토마스 모어, 셰익스피어, 조이스로 이어지는 유토피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참혹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상을 제시한다. 헉슬리는 헨리 포드(Henry Ford)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여 T-모형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한 1908년을 인류의 새 기원으로 삼은 포드력 632년 즉 서기 2540년을 배경으로 가상의 미래 세계를 설정한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풍요로운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고 인간은 기아, 노화, 병마, 장시간 노동, 정신질환 등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는 일견 광장한 유토피아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자율 의지나 인간 본연의 감정을 허용하지 않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수정란을 만들고 부화시킨

후 계급에 맞도록 철저히 구분된 맞춤형 수면 교육을 통하여 계급 이데올로기를 장착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디스토피아의 모습이다. 마치 부품을 조립하여 기계를 만드는 과정처럼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 인간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모습은 ‘인간’ 존재의 의미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이렇듯 획슬리는 태생 전 유전적으로 계급이 결정되고 각 계급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 세상에 대한 참혹한 그림을 제시한다.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방패 모양의 현판에는 ‘공유·균등·안정’이라는 세계국가의 표어가 보인다. (BNW 1)

『멋진 신세계』의 텍스트는 차가운 잿빛 고층 건물 <런던 중앙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데, 건물 입구에는 “공유·균등·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의 모토가 방패처럼 걸려 있고, 차디찬 금속성 소재로 지어진 이 건물 안에서 마치 헨리 포드의 수많은 동일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듯, 동일한 유전자와 동일한 이념을 장착한 인간이 계획적으로 제조된다.

철학자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멋진 신세계가 내세우는 세 가지 지배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한다: “공통성은 (포드 사회의) 전체의 기능에 각 개인이 무조건적 종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상태를 말한다. 동일성은 개인적 차이들이 소멸하거나 생물학적 토대에 이르기까지 규격화되는 것을 말하며 안정은 모든 사회적 역동성의 종말을 의미한다”(재인용 이하준 404). 소설 속의 “세계 국가”(World State)가 지향하는 획일화된 사회는 개인의 자율의지가 원천봉쇄되는 사회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학자 바우만(Zigmunt Bauman)은 『멋진 신세계』는 인류가 직면할지 모를 미래사회의 공포와 두려움을 예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획슬리가 묘사하는 미래사회를 “엄격하게 통제된 하나의 세계”(a tightly controlled world)로 칭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는 사회로 기술한다(박환영 856).

철저하게 계획되고 기획된 체제 속에서 인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조되고 용도대로 사용되고 유통기한이 다하면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감정 소모도 없이 폐기 처분된다.

앞서 소개한 계급과 인종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블룸의 이상주의적 상상과는 정반대로, 혁슬리는 생물학적으로 계급이 철저히 구분되는 구획화된 세계를 그리는데, 그 과정은 윤리적 의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일 분 동안 도는 회전수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포스터씨가 설명했다. “대용혈액의 순환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폐를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에게 주는 산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자면 산소 결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하지만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고 어떤 순박한 견습생이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소장이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엡실론 계급의 아이는 엡실론적 유전뿐 아니라 엡실론적 환경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쯤 자네는 생각하지 못하냐?” (BNW 7)

<런던 중앙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의 직원 포스터는 견학 온 학생들에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알파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등의 사회 계층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구분된다. 감마와 엡실론과 같은 낮은 계층의 경우 계급에 걸맞은 열등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 일부터 산소공급을 희박하게 함으로써 지능을 하락시킨다. 이로써 『멋진 신세계』가 제시하는 미래사회는 태어나기도 전에 계급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후천적 노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칸막이에 대해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계층에 부합하는 정신무장 교육이 제공된다.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끼어든다면 소마(soma)라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여, 슬픔, 분노, 외로움 등 감정의 걱정 없이 오로지 행복감만을 느끼게 해준다.

미리 계획된 삶과 완벽하게 통제된 감정 속에서 살지만 『멋진 신세계』가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권리와 자율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멋진 신세계』 텍스트의 거의 끝 무렵 존과 총통 머스타파 몬드가 벌이는 심도 있는 토론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저는 불행할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 . . 늙고 못생기고 성불구자가 될 권리, 성병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게 거의 없을 권리, 형편없이 살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 괴로울 권리는 말할 것도 없소. . . . 저는 그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BNW 161)

위의 대화가 포함된 챕터는 종교, 문화, 교육 등 세계 국가(World State)의 체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대화가 수많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멋진 신세계』가 디스토피아인 이유를 증명한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존은 총통과의 대화에서 온갖 불편을 겪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간 존재의 근본은 부정적인 것일망정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자유와 권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리함과 쾌락이 주어진다 해도 유토피아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율 의지가 결국은 인간 존재의 근본원리이기 때문이다.²⁾

그러나 『멋진 신세계』가 제시하는 세상을 바람직한 유토피아로서 혁신리 자신이 권장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지, 과학의 힘을 맹신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이 엄습할지 모른다는 경고로 해석해야 할지, 그 여부에 대해

2)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리는 “그러나 우리 중 몇몇은 자유 없이 인간은 온전한 인간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최상으로 가치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But some of us still believe that, without freedom, human beings cannot become fully human and that freedom is therefore supremely valuable)(*Brave New World Revisited* 130).

서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브래드쇼(David Bradshaw)의 『감춰진 헉슬리』(*The Hidden Huxley*)와 헉슬리의 에세이 전집 출간 이후 헉슬리의 사상과 『멋진 신세계』에 담긴 작가적 의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단, 소마에 대한 헉슬리의 생각은 그가 오웰(George Orwell)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 세대에는 세계의 통치자들이 곤봉이나 감옥보다는 유아적인 훈육과 마취, 최면이 통치 도구로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14). “유아적인 훈육”이란 표현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신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헉슬리는 1959년 『다시 찾은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Revisited*)에서 『멋진 신세계』가 보여주고자 했던 세계가 “흰개미 떼와 똑같이 인간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능한 한 거의 극한까지 몰아 부친 세상을 재현하려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24).

그러나 헉슬리의 이러한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권영희는 자신의 논문에서 브래드쇼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929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의 전례 없는 위기국면에서 헉슬리는 서구문명 전체가 파국에 이른 상태라는 시작을 당대 지식인들과 공유하는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 아래 사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81). 이렇게 볼 때, 작품 속 “세계 국가”(World State)의 전체주의적 체제와 이념을 순전히 풍자나 패러디의 대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비평가 쿠마(Krishan Kuma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렇다면 『멋진 신세계』는 헉슬리의 명백한 의도대로 완성된 지옥인가? 우리는 그 세계에 몇 가지 불안의 근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지만, 혹시 더 긍정적인 것들이 시사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격리된 구조를 좀 더 인간적 성취의 약속으로 해동시킬 수 있을만한 함의는 없던가? 유토피아들은 흔히 작가들이 보지 못한, 혹은 의도되지 않았던 디스토피아의 자질들을 품고 있다. 이는 또한 디스토피아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디스토피아도, 아무리 왜곡되고 축소된

형태로라도, 유토피아의 충동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286)

유토피아 안에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 있듯, 『멋진 신세계』 안에 유토피아적 충동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쿠마의 질문은 통찰력이 있다. 『율리시스』에 나타난 유토피아 속에 공존하는 디스토피아적 요소, 그리고 『멋진 신세계』의 디스토피아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상상 역시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³⁾ 이렇듯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연결되어 교차하며, 시대가 갖는 양면성을 상반된 방향으로 표출한다. 그리고 예민한 예술가적 통찰력으로 작가는 야누스와 같은 시대의 두 얼굴을 텍스트 안에 그려낸다. 물론 유토피아건 디스토피아건 둘 다 현실에 뿌리를 단단히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전쟁과 과학기술의 혁신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세기 초에 활약한 두 모더니즘 작가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은 현재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 다름 아니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글을 맺으며

서둘지 않는 두 개의 콤파스 바늘처럼, 천천히 매우 천천히, 발이 오른 쪽으로 향했다; 북, 북동, 동, 남동, 남, 남남서; 그리고는 멈췄다가, 몇 초 후, 서둘지 않고 다시 왼쪽으로 향했다. 남남서, 남, 남동, 동,
(BNW 173)

『멋진 신세계』 텍스트는 자살한 존의 발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묘사로 끝난다. 세계 국가와 야만인 보호구역 모두에서 이

3) 파나고폴로스(Nic Panagopoulos)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친다: “헉슬리는 자유로운 성관계, 마약, 사회적 조건화에 기초한 사회를 이상적인 상태로 명확히 제시한다”(Huxley explicitly presents a society based on free sex, drugs, and social conditioning as the ideal state)(307).

방인이었던 존의 죽음은 결국 세계 국가도 야만인 구역도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시체의 위치는 죽음 역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존이 죽음을 택한 장소가 등대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등대는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소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세계 국가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존의 죽음은 정작 그 어떤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성도착적 환상과 상업적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멈추고 자살을 행한 존의 결단은 최소한 세계 국가도 야만인 보호구역도 인간 존재를 위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20세기의 두 거장 조이스와 헉슬리의 대표작을 ‘유토피아/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두 작가를 비교·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은 부족하나마 시도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실과 미래에 대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소설의 주요한 역할로 보았을 때, 그 어떤 작품보다도 『율리시스』와 『멋진 신세계』 두 텍스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21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얻을 수 있다. 두 텍스트 모두 근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퇴보하고 계급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진보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문명의 문제점을 성찰하게 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과학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비대해지고, 인문학의 효용가치는 이와 반비례하여 축소되고 있는 현시점에, 두 작가가 제시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은 첨단과학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유의미한 비전을 제시해준다.

(안양대)

인용문헌

- 권영희. 「『멋진 신세계』의 포드주의 비판: 노동, 몸, 성의 문제들」. 『안과 밖』 제35권, 2013, pp. 279-303.
- 박환영. 「헉슬리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 내재된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 몸(body)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5호, 2020, pp. 855-87.
- 이하준. 「계몽과 멋진 신세계: 아도르노의 헉슬리 다시 읽기」. 『동서철학 연구』 제81권, 2016, pp. 399-422.
- Bradshaw, David. *The Hidden Huxley*. Faber and Faber, 1994.
- Fraser, Raymond, and George Wicks. “Aldous Huxley, the Art of Fiction No. 24.” philosophyofscienceportal.blogspot.com/2011/01/aldous-huxleys-interview-in-paris.html. Accessed 16 Sep. 2023.
-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Harper, 2006. Abbreviated as *BNW*.
- . *Brave New World Revisited*. Chatto and Windus, 1959.
- . “A Letter to George Orwell.” *Brave New World*. Harper, 2006, pp. 12-14.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Random House, 1986.
- Kent, Kelley S. “James Joyce’s *Ulysses* and Bloom’s Utopian Vision of Ireland.” *Inquiries Journal/Student Pulse*, vol. 5, 2013. www.inquiriesjournal.com/articles/772/james-joyces-ulysses-and-blooms-utopian-vision-of-ireland. Accessed 10 Sep. 2023.
- Kumar, Krishan. “Science and Anti-Utopia: Aldous Huxley and *Brave New World*.” *Utopia and Anti-utopia in Modern Times*. Blackwell, 1991, pp. 224-87.
- More, Thomas. *Utopia*. Penguin Books, 2003.
- Panagopoulos, Nic. “*Brave New World* and the Scientific Dictatorship: Utopia or Dystopia?” *Comparatismi*, vol. 1, 2016, pp. 302-10.
- Shakespeare, William. *The Tempest*. Signet Classics, 1998.

AbstractUtopian or Dystopian Imaginations of Present and Future:
Rereading Joyce and Huxley

Kyoungsook Kim

Although James Joyce and Aldous Huxley wrote novels in the similar period, there has been no study proving interrelationship or inter-influence between them. However, Joyce's *Ulysses* and Huxley's *Brave New World* demonstrate similarities in a number of aspects including thematic and stylistic innovations. Joyce, through Bloom's fantasy in the 15th episode of *Ulysses*, presents utopian imagination in which everyone is happy and equal without any demarcations in gender, race, and class. Huxley, through *Brave New World*, paints a bleak picture of future in which human beings are manufactured and engineered much like machines in a tightly controlled process. In spite of seemingly contrary points of view between the two texts, this essay aims to prove that Joyce's *Ulysses* and Huxley's *Brave New World*, read and analyzed in juxtaposition, can provide a complementary vision even toward our own society when the real meaning of human beings are questioned ceaselessly along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 **Key words** : James Joyce, Aldous Huxley, Utopia, Dystopia, *Ulysses*, *Brave New World*
(제임스 조이스, 올더스 헉슬리,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율리시스』, 『멋진 신세계』)

논문접수: 2023년 10월 23일

논문심사: 2023년 10월 23일

게재확정: 2023년 12월 15일